

– 2017년도 남동구의회 – **사회도시위원회 비교시찰 결과 보고**

- 녹지공간 및 각종 환경처리시설이 주거공간과 공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행정 도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관광산업 육성 방안 모색과 우수사례를 의정활동에 접목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1

시찰개요

- 시찰기간 : 2017. 9. 4(월) ~ 9. 6(수) / 2박 3일
- 시찰지역 : 부산광역역시
낙동강관리본부(화명생태공원), 부산환경공단(해운대사업소)
- 참석대상 : 9명(의원 5명, 직원 4명)
 - 의원 : 이오상, 민창기, 이선옥, 최승원, 한정희
 - 직원 : 서정현, 권춘희, 김종훈, 안진복
- 소요예산 : 1,435,000원





【낙동강관리본부(화명생태공원)】 【부산환경공단(해운대사업소)】

2

비교시찰 결과보고

① 시찰지역 현황

| 구 분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부산광역시 |
|------------------|-----------|------------------------------------|
| 소 재 지 | 소래로 633 |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 일 반 현 황 | 면 적 | 57.01km ² |
| | 인구(명) | 534,860명 |
| | 행정기구 | 4국, 4실, 1단, 27과 1직속, 1사무국, 2사업소 |
| | 행정구역 | 19동 |
| | 예산규모 | 7,041억원 |
| | 공무원수 | 1,006명 |



② 주요 시찰지역 및 내용

| | |
|-------------|--|
| 부산 광역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남동단의 관문 도시 - 1876년 개항하여 주로 일본과 무역 거래 후 발전 -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쟁물자가 들어오는 항구 역할을 하고 이때 피난민이 거주하며 임시 수도로서 역할 - 남동임해공업지대의 중심도시로 부산권 형성 |
| 낙동강 관리본부 | <p>◆ 화명생태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강변일원 - 체육시설(11종) :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 휴식·자연체험 : 연꽃습지, 수생식물원, 산책로 - 수상레저 : 수상레포츠타운, 야외수영장, 화명 선착장 |
| 부산 환경공단 | <p>◆ 해운대사업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98 - 처리용량 : 소각처리시설 170톤/일 하수처리시설 $65,000\text{m}^3$/일 - 처리구역 : 소각처리장(해운대구, 기장군) 하수처리장(해운대구, 좌동, 중동일부) - 면적 : 부지 $30,989\text{m}^2$, 건축 $5,833\text{m}^2$(지하2층, 지상6층) |
| 감천마을 | <p>◆ 도시재생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부산 사하구 감내2로 203 - 50년이 넘은 낡은 집과 골목을 철거한 후 아파트를 짓는 뉴타운 개발방식을 포기하고 기존 건물에 문화라는 테마를 입힌 도시 재생 방법 선택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 선정 학생과 작가·주민들이 합심하여 마을 담벼락과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려 넣고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부산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
| 국제시장 | <p>◆ FLOOR MA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부산 중구 신창동4가 - 현황 : 면적 $1,049\text{m}^2$, 점포수 1,489개소 - 부산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자갈치시장, 부산깡통시장과 함께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손꼽힘. 국제시장은 6공구로 나뉘어져 각각 전문화된 물품들을 도소매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특성화된 인근 시장들과 함께 거대한 상권을 형성 |



3 주요일정표

| 일자 | 일정 | 시간 | 내 용 |
|---------------|----------------|------------------|--|
| 1일차 9/4(월) | 이동 (남동구→부산) | 08:00 ~ 13:00 | ◆ 출발 |
| | 중식 | 13:00 ~ 14:00 | ◆ 중식 |
| | 낙동강관리본부 | 14:00 ~ 16:00 | ◆ 화명생태공원 견학 |
| | 부산환경공단 | 16:00 ~ 18:00 | ◆ 수영사업소 견학 => 해운대사업소 (해당기관 사정으로 사업소 변경) |
| | 석식 및 간담회 | 18:00 ~ 21:00 | ◆ 석식 ◆ 간담회 |
| 2일차 9/5(화) | 기상 및 조식 | 07:00 ~ 09:00 | ◆ 기상 및 조식 |
| | 지역문화 탐방 | 10:00 ~ 12:00 | ◆ 감천문화마을(도시재생 프로젝트) |
| | 중식 | 12:00 ~ 13:00 | ◆ 중식 |
| | 지역문화 탐방 | 13:00 ~ 14:00 | ◆ 영도대교 다리 도개 |
| | 지역문화 탐방 | 14:00 ~ 18:00 | ◆ 국제시장(자갈치시장, 깡통야시장) |
| | 석식 및 간담회 | 18:00 ~ 21:00 | ◆ 석식 ◆ 간담회 |
| 3일차 9/6(수) | 기상 및 조식 | 07:00 ~ 09:00 | ◆ 기상 및 조식 |
| | 지역문화 탐방 | 09:00 ~ 12:00 | ◆ 해동용궁사 |
| | 중식 | 12:00 ~ 13:00 | ◆ 중식 |
| | 이동 (부산→남동구) | 13:00 ~ 18:00 | ◆ 구청 도착 |

4 예산 집행 내역

| 구 분 | 산 출 내 역 | 금 액 | 비 고 |
|------------|---------|------------------|-----|
| 총 계 | | 1,435,000 | |
| 숙박비 | 9명 * 2박 | 594,000 | |
| 식비 | 9명 * 9식 | 567,000 | |
| 기타비용 | 주차비 등 | 274,000 | |



3

우수사례 및 비교 분석

① 낙동강관리본부(화명생태공원)

- 화명생태공원은 낙동강 좌안 북구 구포동 대동화명대교까지의 둔치 지역으로 낙동강하구 둔치 중 면적이 가장 작다.
화명신도시와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야구장, 축구장을 비롯하여 테니스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또한 연꽃습지, 수생 식물원, 산책로 및 데크는 휴식과 자연체험을 하기에 좋으며 수상레포츠타운, 화명선착장, 야외수영장 등 다양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한편 남동구 소재의 소래습지생태공원은 드넓은 습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 그대로의 갯벌을 보전하고 있다. 2016년 행정자치부는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인천대공원까지 10.4km 구간을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하였다.

자연의 개발과 보전의 경계를 다시 한 번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포구어시장과의 대중 교통편 등, 주민이 용이하게 접근 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은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② 부산환경공단(해운대사업소)

- 부산환경공단은 환경 기초 시설 최적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부산의 하수 처리와 하수찌꺼기의 자원화, 소각(자원에너지)사업, 도로미세먼지 제거사업, 매립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소화가스(CNG)연료사업 등 환경에 관한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도시, 맑은 물이 흐르는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 매년 여름밤 하수처리장에서 펼쳐지는 환경사랑음악회는 ‘환경과 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친환경 생태도시 부산을 만들어가는 공단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사랑봉사단’을 구성, 독거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 지원은 물론, 도시재생 마을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공헌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공단의 우수사례 중 손꼽을 만한 점은, ‘환경체험학교(견학) 및 체육 시설 개방“을 들 수 있다. 부산시 한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공단은 주민과의 화합과 신뢰를 위해 17개 전 사업소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체육 시설을 무료 개방하여 주민에게 친숙한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구의 음식자원화 시설 또한 최첨단 기술과 운영 시스템 완비로 친환경 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주민과의 화합과 신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③ 감천마을

- 감천문화마을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에 위치한 마을로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힘겨운 삶의 터전으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 근현대사의 흔적과 기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동안 저소득층 주거지로 낙후된 마을이었으나 2009년 마을 미술 프로젝트인 ‘꿈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사업과 2010년 콘텐츠 융합형 관광 협력 사업인 ‘미로미로 골목길 프로젝트’ 사업으로 환경 정비와 벽화 사업이 이루어지며 현재와 같은 형태로 변화되었다. 천마산 기슭의 좁은 골목길과 저층형의 옛 주택들이 조화를 이루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주민 생활 개선과 작은 카페와 가게 등이 들어서며 감천문화마을로 알려졌다.

금번 비교시찰을 통하여 살펴본 감천문화마을의 우수사례는, 첫번째로 2012년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에서 볼 수 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만큼, 다양한 사업과 컨텐츠 개발로 주민 공동체의 자립기반이 조성되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심재생의 마을 만들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업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우수사례를 찾을 수 있다. 기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현대인의 새로운 역사를 덧입혀 죽어가던 건물을 새로이 소생시키는데 성공한 사례이다. 무질서하고 낡아보이는 건물들이 얼핏 살막해 보일지모르나 그 속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문화와 예술이 숨쉬며, 지역사회의 삶의 모습이 깃들어있는 것이다. 우리구 또한 새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의 정책 결정시, 주민의 의견 수렴과 기존의 지역자원이 연계된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재생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④ 부산 국제시장

- 부산의 중심지에 위치한 국제시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다. 1945년 광복 이후 일본인들이 남긴 물건과 해외동포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거래하기 위해 현재의 자리를 장터로 삼으며 국제시장의 역사는 시작된다. 1950년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까지 취급하게 되면서 국제시장이라는 이름을 갖추게 되었다. 2015년 글로벌 명품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국제시장을 즐기고, 쇼핑하고, 관광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 한국적 문화와 연계된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부산 국제시장의 지역경제 살리기, 재래시장 살리기의 차별성을 살펴 보자면, 609개에 달하는 청년몰을 들 수 있다. 상점가에 늘어 가는 빈 점포에 젊은이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새 공간과 새 상품으로 채웠으며, 외국인 관광객 쇼핑편의를 위한 사후면세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기존의 재래시장을 활기 넘치는 젊은 시장으로 재생시킨 점이다.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